

책세상 《니체전집》

정본 전집 출간, 국내 니체 연구에 새로운 전기 마련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 평전》《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진리는 미풍처럼 온다(장석주의 니체 읽기)》《정오의 그림자(니체와 라캉)》《니체의 사랑과 철학》《헤겔에서 니체로》《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이상은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일년간 출간된 니체의 저작, 혹은 니체 관련 책들이다. 중복 출간과 청소년 물까지 합하면 20여 종이 넘는다. 과히 니체 르네상스의 도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니체 읽기' 붐이 일고 있다.

철학서 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니체 붐의 중심에는 작년 11월 완간된 책세상 '니체전집'이 놓여 있다. 니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원동력이 된 이 한글판 니체전집은 많은 시간과 공력, 만든 이들의 의지가 들어간 방대한 작업이었다.

니체 서거 백주년이었던 지난 2000년 8월에 시작된 책세상 니체전집은 5년간의 긴 여정을 거쳐 2005년 11월 총 21권으로 완간되었다. 니체는 20세기의 철학과 미학, 심리학, 신학 등 다양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거나 오독되었던 게 사실이다. 책세상 니체전집은 이러한 상황이 니체 저작에 대한 자의적인 편집과 해석, 번역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 하에 정본 니체전집 출간을 목표로 삼고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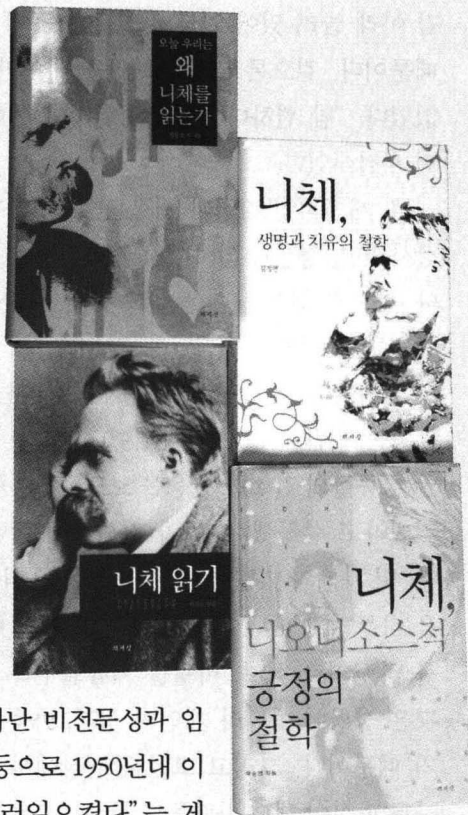
니체 깊이 읽기, 엄밀한 구성과 편집의 정본 채택

니체전집을 담당한 책세상 편집부의 문선휘 차장은 “책세상 니체전집은 니체전집의 정본으로 공인된 독일 발터 데 그루이터Walter de Gruyter 사의 《니체비평전집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KGW) 판본을 채택했다. 대표작은 물론 니체의 저작과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유고집(메모, 일기 등을 모은 책)을 포함하고 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니체의 참모습을 온전히 살려내고자 했다”며 니체전집 출간의 의의를 밝혔다.

“주요 사상가의 저작을 번역하여 사상을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그 사상을 읽기 편하게 축약해놓은 책이나 해설서가 먼저 출간되어 읽히는 국내 풍토에서 이처럼 방대한 전집 출간은 정본 출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실 니체는 국내에서 어느 사상가보다도 일찍 소개되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철학자이다. 그러나 그간의 니체 번역은 “일어판 중역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번역, 번역 원본 선택에서 드러나는 무원칙, 체제상의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문 차장은 설명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니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적 취향의 역사나 편역서 등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니체 사후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니체 생전에 그를 따랐던 페터 가스트는 유고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편집하여 《권력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 즉 《힘에의 의지》를 내놓았다. 이 유고 집은 “니체를 파시즘의 옹호자로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고의 선정과 편집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임의성, 원본 훼손 등으로 1950년대 이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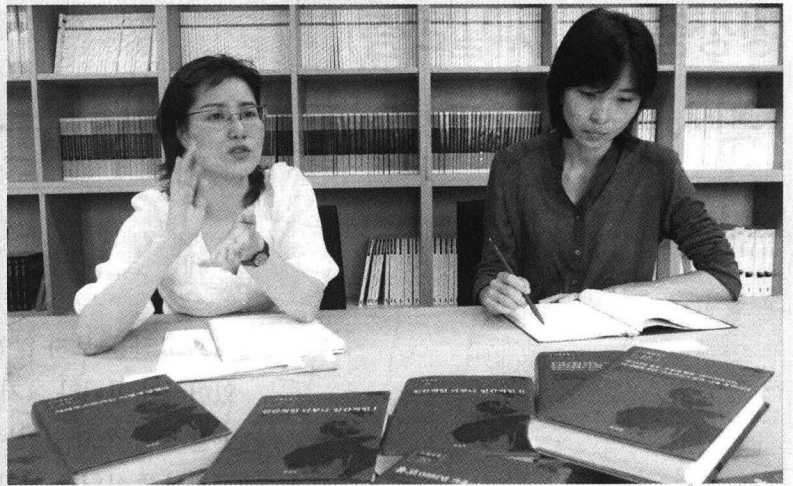
니체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힘에의 의지》를 둘러싼 격렬한 유고 논쟁은 새로운 니체전집 판본을 요구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이탈리아의 학자 몬티나리 Mazzino Montinari와 콜리Giorgio Colli 등은 니체가 남긴 모든 유고를 씌어진 순서대로 정리한 전집 작업을 했으며, 이것이 발터 데 그루이터 사의 전집(KGW)이다. 1967년 첫 출간을 시작한 KGW는 유고가 발굴되는 대로 계속해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권별 넘버링 방식이 아니라 연도별 넘버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니체가 겪은 사유의 편력과 흐름을 목록만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국내 니체 연구에 체계를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GW 전집은 엄밀한 문헌학적 작업을 통해 니체의 글들을 어떠한 침삭도 없이 원형 그대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국내 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확한 직역으로 니체의 저술 의도를 살리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번역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의역과 오역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원칙을 지켜나갔다”는 게 문 차장의 설명이다.

니체 다시 읽기, 니체 번역과 연구의 기준 제시

책세상 니체 전집은 본격적인 출간 작업 이전에 이미 많은 공이 들어간 작업이었다. 책세상 편집부 김광식 주장은 니체를 전공한 중견, 소장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니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수많은 발품을 팔았다고 한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독일에서 니체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 니체학회를 창립한 정동호 편집위원장(충북대 철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꾸려진 책세상 니체 편집위원회는, 1998년 겨울부터 니체의 철학적 개념과 번역상의 오류를 잡고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의 출간 준비 작업을 했다. 그동안 학계에서 문제가 되어온 번역상의 용어나 개념들을 재규정함으로써 니체 번역의 표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초인’은 ‘위버멘쉬 Übermensch’로, ‘권력에의 의지’는 ‘힘에의 의지’로 번역하였다.



책세상 니체전집을 편집한 문선휘 차장과 임정원 팀장

국내판 니체전집은 KGW 가운데 니체의 서신교환이나 서지적 주해서 등을 제외한 철학적 저작들만을 번역했는데, 니체 사상에 대한 설명, 텍스트의 탄생 배경, 각각의 저작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역자들의 충실하고 수준 높은 해설은 니체 수용 80여 년의 국내 연구 성과를 결집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책세상 《니체전집(전2권)》

니체 전집 작업에 매료되어 책세상에 입사했다는 편집부 임정원 팀장은 “책에 따라 번역 작업이 수년씩 걸린 것은 기본이었다”며, 몇몇 책들은 중간에 번역자들이 교체되기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니체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 편집부가 교정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노고가 컸던 정동호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의 성실한 번역과 해석 작업이 니체전집을 탄생시킨 밑거름이었습니다.”

책세상은 니체전집 완간을 기념하여 20세기의 철학과 문학, 예술,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니체가 끼친 영향을 정리한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를 지난 5월 말에 출간했다. 이 책은 전집의 번역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추어 필진으로 참여한 논집으로, 그간의 국내 니체 연구의 성과를 결집시키고 미래의 니체 연구를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 차장은 “책세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니체 연구 관련 서적을 기획, 출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이제스트나 쉬운 해설서들이 유행하는 요즘 출판계에서 정본 읽기와 학술 전집 출판을 지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꾸준히 임하겠습니다.” **추천**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